

Macro

Economist 이하연
hayeon.lee@daishin.com

트럼프 공포에 빨라지는 비미국 경기 부양

- 취임 전부터 트럼프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 공포 심리 고조
- 비미국, 빠르게 경기 부양 강화. 한국 금리인하, 일본 경제대책 발표
- 유로존은 ECB 금리인하 기대에도 재정긴축 기조가 경기 회복에 부담

미국 트럼프 정부에 대한 공포심리 고조

취임 전부터 트럼프 당선인은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차기 내각 주요 인사가 마무리된 이후, SNS를 통해 미국 교역 상위 3개국인 중국 및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 부과를 언급하면서 시장 경계감을 높인 것이다. 물론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불법이민, 마약유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수단일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내 제조업 경기 부양 및 대중견제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을 감안하면, 제조업 수출의존도가 높은 비미국 국가들의 성장 동력 약화는 불가피하다.

한편, 트럼프 정부에 대한 공포감은 비미국의 빠른 정책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한 경계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비미국 정책당국의 빠른 대응은 경기 우려를 낮추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비미국 경기 부양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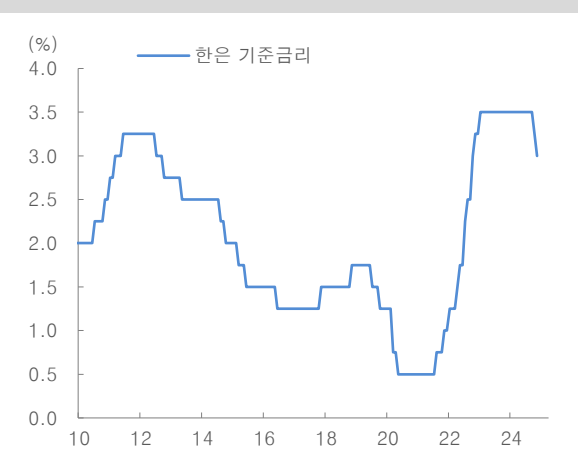
우선, 한은은 당초 예상과 달리 11월 금통위에서 연속 25bp 금리 인하(3.25%→3.00%)를 단행했다. 정책 결정에 우선순위가 부동산 가격/가계 부채에서 성장으로 옮겨지며,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열어뒀다. 함께 발표된 경제전망에서는 2024년, 2025년 성장 및 물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국내 GDP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 부진에 일시적인 요인보다 구조적 요인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은의 연속 금리인하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추경에 대한 기대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시바 총리 당선 이후 처음으로 경제대책을 발표한 일본은 추경 예산안 통과를 목표로 임시 국회가 소집됐다. 39조엔 규모(정부지출 21.9조엔)로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이 포함됐다. 그 외 중소기업으로 임금 인상 확산을 촉구하며 내수 진작에 나서고 있다.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유로존 역시 ECB 금리 인하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재정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유로존 경기회복에 대한 신뢰를 낮춘다. 최근 제출된 EU 주요국 예산안을 보면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축소가 계획되어 있다. 프랑스는 과도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증세 등 고강도 재정긴축을 계획, 예산안 통과에 제동이 걸리면서 내각 붕괴 우려를 초래했다.

구체적인 경기부양안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중국은 트럼프 정부 정책에 따라 대응 방안이 꾸준히 발표되면서 경기 하방 압력 제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한은 2회 연속 금리 인하



자료: 한국은행,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일본 경제대책 발표

항목	재정지출	사업규모
일본 경제·지방경제 성장 － 반도체·AI 지원 등	10.4조엔	19.1조엔
물가상승 극복 － 에너지 비용 보조금 지급 등	4.6조엔	12.7조엔
국민의 안심안전 확보 －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6.9조엔	7.2조엔
합계	21.9조엔	39조엔

자료: 언론 취합,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이하연)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